

가격 분쟁에 흔들리는 전자재 시장

전 병 수 | 건설경제 기자

봄철 건설공사 성수기를 앞두고 전자재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과 전자재 생산 업계의 공급 능력 과잉으로 시장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시멘트를 비롯한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이 만성적인 공급 과잉 구조를 보이면서 수요자인 건설사들과 가격 갈등을 빚고 있다.

가격을 둘러싼 공급자와 수요자의 갈등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올해의 경우 유난히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멘트와 레미콘 및 건설사, 레미콘사와 건설사, 건설사와 제강사, 아스콘사와 정유사가 피 말리는 가격 싸움을 벌이고 있다. 레미콘 업계의 경우 급기야 건설 현장에 사흘 동안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미 시장은 스스로 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 가고 있다. 건

전자재 가격 분쟁이라는 것이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어느 일방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는 최종 수요자인 건설사를 비롯해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생산업계 모두의 경영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사업성 통한 가격 결정 시스템 구축 필요

우선 건설사들은 전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서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최저가낙찰제 아래서 실시되는 건설 공사의 낙찰률은 60~70%대에 그치고 있다. 심할 경우 40% 후반에서 50%대의 낙찰률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낮은 낙찰률로 따낸 공사에서는 전자재비를 후하게 지불할 여력이 없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건설사들의 경영 상태가 어렵다.

100대 건설사 가운데 워크아웃을 경험했거나 워크아웃 중인 업체가 4분의 1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시멘트나 레미콘 등 전자재업체들 역시 어렵다. 시멘트의 경우 국제 유연탄 가격과 유류비 등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으나 이를 공급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레미콘도 시멘트, 골재, 혼화제 등 원부전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으나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 부진, 공급 능력 과잉, 지나친 판매 경쟁, 일부 수요자들의 저가 유도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상호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수시장 규모보다 배 이상이나 되는 전자재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시장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연간 내수시장 규모는 4,500만t

■ 이 슈 진 단

안팎으로 하락했으나 쌍용양회, 동양 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 생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1억t이 넘는다. 철근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전기로 제강사들의 철근 생산 능력은 약 1,200만에 이르고 있으나 내수는 800만t 정도에 그치고 있다.

레미콘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레미콘은 연간 1억 1,000만m³ 정도에 불과하나 생산 능력은 무려 4억 8,000만m³에 달한다. 게다가 지금도 지방 곳곳에서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삼척, 강릉 등 대형 국책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는 레미콘 공장이 난립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의 시장 구조에서는 언제 든지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건설사들의 경영 상태가 좋아지고, 자재 생산업체들이 적정 공급 능력을 갖추어야만 그나마 분쟁을 줄일 수가 있다. 하지만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제도적으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거나 공급자와 수급자가 신사협정을 맺어 가격 결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간 입장 차이가 크고 신뢰가 구축되지 않아 여의치 않다. 따라서 건자재 가격을 둘러싼 공급자와 수요자 간 갈등은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양보 없는 싸움에 정부 중재

쌍용양회 등 시멘트업체들은 지난해 말 현행 t당 6만 7,500원(별크 기준)인 시멘트 가격을 7만 7,000원 선으로 1만원 정도 올려줄 것을 레미콘사들에게 요구했다. 시멘트사들은 1월 중 인상된 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레미콘사들을 압박했다. 날로 치솟는 국제 유연탄 가격과 전기료, 유류가격 상승 등을 가격 인상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레미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가격을 올려준 데다 레미콘업체들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라 수용할 수 없다며 버텼다.

시멘트사들의 가격 인상 드라이브가 강해지자 지난 2월 초에는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 전국 중소 레미콘업체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시멘트업체들의 가격 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며 즉각 인상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인상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2월 22일부터 전국 공장의 가동을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미콘사들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레미콘 가격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시멘트사와 레미콘사 간 벌어진 싸움에 건설사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레미콘사들은 건설사들이 레미콘 가격을 올려주면 시멘트 값도 올려주겠다고 건설-시멘트-레미콘 3자 협상을 요구했다.

건설사들은 시멘트사와 레미콘사간의 싸움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선 지난해 7월 레미콘 가격 협상을 타결하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다음으로는 시멘트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레미콘 가격을 협상한다는 것은 일의 순서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건설-레미콘-시멘트 3자간 공방전이 벌어지자 결국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두 차례에 걸쳐 3자 대표들을 과천 정부청사로 불러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

첫 모임 때는 각 업계 대표들이 종전의 입장을 주장했다. 변함없는 상대의 입장을 확인한 자리였다. 두 번째 회동에서는 3자간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지만 합일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3자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2월 22일에는 중소 업체들이 예고한 대로 전국의 레미콘 공장이 생산을 멈추었다. 동시에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도 중단됐다. 지역적으로 레미콘사들이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는 가끔씩 있었지만 전국의 레미콘업체들이 동시에 공장을 세운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 왔던 삼표, 유진, 아주 등 대형 업체는 물론 쌍용, 성신, 한일 등 시멘트계 레미콘업체들까지 공급 중단에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시급을 요하는 여수엑스포 현장과 세종시 아파트 현장 등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서 여론화됐다. 건설사들은 레미콘사들이 건설 현장을 볼모로 삼아 가격 인상을 추진한

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즉각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레미콘은 건설사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을 통해 구매하겠다고 반격했다.

정부 중재와 건설사들의 반발 속에 레미콘사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중단을 감행한 지 사흘만의 일이다. 다행히 건설 현장의 레미콘 공급이 재개돼 공정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철근, 아스콘 가격도 힘겨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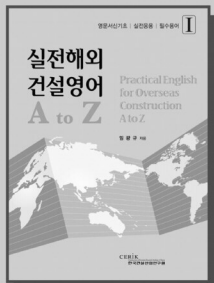
철근 가격을 놓고도 건설사와 제강사가 힘겨루기를 반복하고 있다. 1, 2월 가격 협상이 제자리걸음이다. 건설사들은 1월 가격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t당 81만원(고장력 10mm, 현금가 기준), 2월은 83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제강사는 1월 84만원, 2월

87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아스콘의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 인상을 놓고 아스콘업체와 정유사가 대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관납 계약을 체결할 때의 가격이 kg당 723원이었던 아스팔트의 가격이 무려 900원 가량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납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아스팔트의 비중도 59%에서 68%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아스콘업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을 아스콘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업체는 정유사에는 아스팔트 가격 인상 자제를, 조달청에는 아스콘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체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도로 등 건설 현장의 아스콘 포장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CERIK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펴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지난해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I」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